

# 주거 공간 어휘의 통시적 연구(1)\*

- 전남 장흥 지역어 '부삭, 정제'를 중심으로

위진 · 손희하(전남대)

##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V. '정듀'에서 '정제'로의 음운론적<br>변천 |
| III. '브습'에서 '부삭', '정제'로의 의미 분화 | VI. 맺음말                     |
| IV. '브습'에서 '부삭'으로의 음운론적<br>변천  |                             |

## I. 머리말

어휘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의미하는 범위나 음운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고는 주거 공간 어휘가 지역적 차이를 보이게 된 과정을 국어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주거 공간과 관련된 방언의 연구는 지역 방언의 특징을 밝히는 연구의 보조적 자료로 이루어졌으며, 주로 공시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곧 지역적 차이를 보이는 공시적인 방언형을 조사하여 지역 방언의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의 일환이나 특정 지역의 하위 방언 구획을 정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다.(김형규

\* 이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05-A00005)

1974, 이기갑 1986) 그동안의 연구가 공시적 관점에 치중하였기에 주거 공간 어휘에 대한 통시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주거 공간 어휘를 국어사 문헌이란 통시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의미 분화 양상과 음운론적 형태 변화에 중점을 두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sup>2)</sup>

본고는 전남 장흥 방촌 민속 마을에서 쓰는 ‘부삭’과 ‘정제’를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sup>3)</sup> ‘부삭’은 중앙 방언 ‘부엌’과 어원이 동일하며, 15세기 어형인 ‘브엷~브익’에서 변화했을 것이란 점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다.(이승재 2004, 12, 김형규 1974, 50~51 참조 바람) 그런데 ‘부삭’과 ‘부엌’은 의미상 차이를 보인다. ‘부삭’은 ‘불을 때기 위해 만든 구멍.’을 가리키는 반면에, ‘부엌’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등 식사에 관련된 일을 하는 곳.’(<표준 국어 대사전> 참조)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부삭’과 ‘부엌’은 통시적으로 동일한 어형 ‘브엷~브익’에서 변화하였지만, 지역에 따라 ‘불을 때는 구멍’과 ‘조리 공간’으로 의미상 차이를 보이면서 변천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조리 공간’을 뜻하는 전남 방언은 ‘정제’인데, ‘부엌’과 ‘정제’는 어원상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본고는 ‘브엷’에서 ‘부삭, 정제’로 의미

- 2) 자료 검색을 위해서는 먼저 손희하(2004)와 문화관광부·국립국어연구원(2004)을 기초 자료로 삼아 <통합형 한글 자료 처리기(깡깡새; SynKDP) 1.55판>과 <uniconc.exe> 등의 검색기를 이용하였다(여기에 이 사실을 밝혀 만든 이의 노고에 감사한다. 아울러 국어 정보화를 더욱 밀어 마지않는다). 검색기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원전을 확인하는 방식을 취했다. 예문의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은 ‘한민족 언어 정보화’의 방식을 따랐다.
- 3) 조사 대상 지역은 전남의 서남 지역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의 방촌 민속 마을이다. 이 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고른 이유는 전형적인 전남 방언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 방언은 일차로 크게 동서로 나누며, 이는 다시 각각 남북으로 나눈다. 장흥 지역어는 크게 보면 서부 전남 방언, 더 나누면 서남 전남 방언에 해당한다(이돈주 1979, 서상준 1984/1997, 이기갑 1986/1998 들을 참조하길 바람. 전남 방언을 동서와 남북으로 나누는 주요한 특질에 대해서는 이기갑(1998)을 참조하길 바람). 동부 방언은 경상 방언과 인접한 관계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서북 방언은 전북 방언과 인접한 이유로 영향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전형적인 전남 방언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은 서남방언이라 할 수 있다(이기갑 1998을 참조하길 바람). 또한 이 지역에는 전라남도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적인 양반 가옥이 철저히 보존되어 있어서 실제 거주자로부터 주거 관련 어휘를 수집하기가 수월하다.

분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국어사 자료를 통해서 밝혀보고자 한다. 그리고 ‘부삭’과 ‘정제’의 음운론적인 형태 변화 과정도 추정해보고자 한다.

## II. ‘브섭’에서 ‘부삭’, ‘정제’로의 의미 분화

‘부삭’의 의미 분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는 15세기의 ‘브섭’이 ‘불을 때는 구멍’을 의미했는가 아니면 ‘조리 공간’을 의미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브섭’이 ‘조리 공간’과 ‘불을 때는 구멍’을 모두 가리켰는가 아니면 ‘조리 공간’과 ‘불을 때는 구멍’ 중 한 의미만을 뜻하다가 의미 변화를 일으켰는가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조리 공간’만을 지칭하는 ‘정제’가 사용된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정제’류의 어휘가 사용되었다면 ‘브섭~브석’은 ‘불을 때는 구멍’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부삭’이 어느 시기의 의미를 전승했으며, 어느 시기에 중앙 방언에서 의미 분화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셋째로는 ‘불을 때는 공간’을 가리키는 중앙 방언 ‘아궁이’가 사용된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불을 때는 공간’을 의미하는 말을 ‘아궁이’로 대체하였다면, ‘브섭’은 더 이상 ‘불을 때는 공간’이란 의미를 잃은 채 ‘조리 공간’만을 뜻하게 된다. 중앙 방언에서 ‘아궁이’를 사용한다면 ‘조리 공간’을 뜻하는 ‘부엌’과 계열을 이룬 것이고, 전남 방언의 ‘부삭’, ‘정제’ 계열과 대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국어사 자료에 나타난 ‘브섭’의 용례부터 찾아보아야 할 것 같다.

### (1) 브섭

ㄱ 如 브섭 爲竈<1446훈민해,057>4)

4) 예문으로 사용한 용례는 ‘한민족 언어 정보화’의 ‘국어 어휘의 역사’에서 검색한 결과를 참고하여, 논의의 대상이 되는 원문을 확인하는 방식을 취했다.

‘브섭’은 <訓民正音 解例>에서 나타는데 대응하는 한자는 ‘寵’이다. <漢韓大字典>에 따르면 ‘寵’는 ‘취사(炊事)하는 곳’이다. 또한 ‘寵’의 부수가 ‘宀’인 것이나 ‘寵’의 속자가 ‘灶’인 것을 보아도, ‘寵’는 ‘조리 공간’보다는 ‘불을 때는 구멍’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훈민정음 해례>에 사용된 ‘브섭’은 ‘불을 때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어사 자료에서 ‘브섭~브석’이 ‘불을 때는 공간’이란 의미에 규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 (2) ㄱ 안호로 붓그르디 브석 굽기 검디 문호 나롤 여러 차반으로써 주느다(寵突 이 不黔 黑은 言其食甚 호야 不得炊爨야 | 라)<1481두시초22,050b>
- (2) ㄴ 나그내의 브석뵈 머굴 거시 사오나오니(客子庖廚薄)<1481두시초 16,072a>
- (3) 庖 브석 포烹魚之所大曰~ / 廚 브석 듀小曰~ / 寵 브석 조亦作灶窰 因又俗呼鹽戶曰~戶<1527훈몽자,중,005b>

(2)는 <두시언해> 초간본에서 ‘브석’이 쓰인 예문이다. (2) ㄱ의 ‘브석’은 대응하는 한자가 ‘寵突’이며, ‘굽기’와 연결된 것으로 보아 ‘불을 때는 공간’을 의미한다. 반면 (2) ㄴ의 ‘브석’은 대응하는 한자가 ‘庖廚’인 것으로 보아 ‘조리 공간’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두시언해>에 나타난 ‘브석’은 ‘불을 때는 공간’과 ‘조리 공간’을 가리키는 어휘로 사용되었다.

예산문고본 <훈몽자회>에서도 (3)과 같이 한자 ‘庖, 廚, 寵’의 뜻을 모두 ‘브석’으로 새기고 있다. ‘庖’와 ‘廚’의 하주를 보면, ‘庖’와 ‘廚’는 ‘烹魚之所’(삶고 굽는 장소)라 해서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조리 공간’을 의미한다.<sup>5)</sup> 반면에 ‘寵’의 하주에서는 ‘亦作灶窰 因’(灶, 窰, 因라고도 한다)라 해서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1)의 예에서 보았듯이 ‘寵’는 ‘불을 때는 공간’을 뜻한

5) <소학언해>의 협주에서는 ‘庖’를 ‘짐승을 죽이는 장소’로, ‘廚’를 ‘음식을 익히는 장소’로 설명하고 있다. “君子 | 庖(짐승 죽이는 짜히라)과 廚(음식 익히는 짜히라)를 멀리 호야<1586소학언,03,026b>” 그리고 <내훈언해>의 하주에서는 ‘廚’를 ‘차반을 만드는 장소’로 설명하고 있다. “廚는 차반 땡그는 디라<1475내훈언,01,060a>”

다. <훈몽자회>에서도 ‘庖, 廚’는 ‘조리 공간’으로 ‘竈’는 ‘불을 때는 구멍’으로 의미상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모두 ‘브석’으로 새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2)~(3)의 예문은 ‘브섭~브석’이 ‘불을 때는 공간’과 ‘조리 공간’으로 의미를 분화하지 않고 통합된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논의의 초점은 ‘브섭~브석’이 ‘조리 공간 + 불을 때는 구멍’을 뜻하였는가, 아니면 ‘불을 때는 구멍’만을 뜻하였는가 하는 것이 된다. 이 의문은 ‘조리 공간(廚)’을 뜻하는 어휘를 국어사 자료에서 찾아보면 풀릴 것이다.

- (4) 대 습 소개 녀왓는 브셔브셔 玉盤을 씻느니(竹裏行廚洗玉盤)<1481두시초 22,007a>  
 宋 시절 려릉왕 義眞이 武帝서 거상에 左右엿 사르물 브려 도흔 고기 차반을 사다가 집 안에 각버리 브석 밍그라 두고 먹더니(宋廬陵王義眞 居武帝憂使左右 買魚肉珍羞 於齋內 別立廚帳)<1517번소학,07,013b>  
 브석집 우헛 거미영을 수레 흐 소솨이나 두 소솨이나 글혀 그 수를 머그라 <15XX<sup>6)</sup>구급간,07,047a>  
 廚房 부엌<1768몽유상,025b>, 廚 부엌 주<17XX왜유해,상,031b>, 부엌 <1880한불자,338>, 부엌 주<1908신정천,028>, 부엌 주<1913부별천,019b>
- (5) 廚 정두 듀<1576신유합,上,023b>, 정디 듀<1664유합칠,014b>, 정두 듀 <1700유합영,014b>, 정지 주<1884정몽유,016b>, 정지 주<1916통학경,021a>  
 어머니는 병들어 눕기는커녕, 정지에서 아침 반찬을 할 것인지 생선을 다르고 섰지 않은가.<19XX상록수2,260>

(4)에서는 ‘조리 공간’을 뜻하는 어휘로 ‘브섭’류 어휘를 쓰고 있으며, (5)에서는 ‘정두’류 어휘를 쓰고 있다. ‘브석’류 어휘는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 높은 빈도로 출현한다. 그리고 ‘정두’류 어휘는 16세기에 간행된 <신증유합>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20세기 신소설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브석’류에 비해 출현 빈도가 높지 않으며 주로 한자 학습서의 새김으로 사용되어 있다.

위의 예는 국어사 자료에서 ‘조리 공간’을 뜻하는 어휘로 ‘브섭’류와 ‘정두’류

6) ‘15XX’란 문헌이 1500년대에 간행된 것이나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가 존재했음을 보여 준다. 중세국어 시기에는 ‘브섭’류 어휘가 ‘불을 때는 공간’과 미분화된 상태로 ‘조리 공간(廚)’이란 의미를 담당하였는데, 16세기 후기부터는 ‘조리 공간’을 뜻하는 새로운 어휘인 ‘정듀’류가 등장하면서 혼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정듀’류와 ‘브섭’류는 의미하는 범주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은 듯하다. ‘정듀’류 어휘는 ‘브섭’류 어휘와 달리 ‘조리 공간’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듀’가 ‘조리 공간’을 뜻하는 한자 ‘廚’와 음이 같으므로 ‘廚’와 연관된 한자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로 한자 학습서에서 ‘廚’의 새김으로 나타난 사실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 해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실 1>

중세 국어 시기에 ‘브섭~브석’은 ‘조리 공간 + 불을 때는 공간’으로 의미가 분화되지 않은 채 사용되었다.

<사실 2>

16세기 후기부터 ‘조리 공간’을 뜻하는 어휘로 ‘정듀’ 계열의 어휘가 등장하면서, ‘브섭’류와 유의 경쟁을 했을 것이다.

위의 사실을 토대로 본고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가설 1>

16세기에 등장한 ‘정듀’류 어휘는 ‘브섭’류 어휘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듀’류가 사용된 시기나 지역에서 ‘브섭’류 어휘는 의미가 축소되어 ‘불을 때는 공간’만을 의미했을 것이다. 이러한 ‘브섭’류와 ‘정듀’류 어휘의 의미가 전남 방언에 그대로 계승되었을 것이다.

<가설 2>

현재 중앙 방언에서 ‘부엌’이 ‘조리 공간’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중앙 방언에서도 ‘부엌’의 의미는 축소되었다. 그렇다면 ‘부엌’의 의미가 축소된 계기는 ‘불을 때는 구멍’을 뜻하는 새로운 어휘의 등장이었을 것이다. 현재 중앙 방언을 감안해보면 ‘아궁이’류가 그 의미 기능을 담당했을 것이다.

<가설 1>이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어사 자료에 나타난 ‘정듀’의 용례를 찾아 ‘정듀’가 ‘조리 공간’을 의미하며, 이 경우의 ‘브엷’류는 ‘불을 때는 공간’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럼 ‘정듀’류가 문헌에 나타난 예부터 찾아보아야 하겠다.

- (6) 정듀  
 廚 정듀 듀, 籠 브억 조<1576신유합,上,023b>
- (7) 정두  
 廚 정두 듀, 籠 브새 조<1700유합영,014b>
- (8) 정디  
 정디 듀 廚, 브엷 조 籠<1664유합원,014b>  
 정디 듀 廚, 브엷 조 籠<1664유합철,014b>
- (9) 정지  
 정지 쥬(廚)<1884정몽유,016b>  
 廚 정지 쥬, 籠 부억 조<1916통학경,021a>

‘조리 공간’을 뜻하는 ‘정듀’는 국어사 자료에서 ‘정듀, 정디, 정두, 정지’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위의 예문이 공통점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위의 예문들은 모두 ‘廚’의 새김으로 ‘정듀, 정디, 정두, 정지’를 쓰고, ‘籠’의 새김으로는 ‘브억, 브새, 브엷, 부억’을 쓰고 있다. 이같이 ‘정듀’류 어휘와 ‘브억’류 어휘를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한 사실은, ‘정듀’와 ‘브억’이 다른 의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어휘에 대응하는 한자의 의미만 확인하면 궁금증은 풀릴 것이다. ‘정듀’를 새김으로 쓴 한자는 ‘廚’이고 ‘廚’의 의미는 ‘조리 공간’이므로, ‘정듀’는 ‘조리 공간’을 뜻한다. 그리고 ‘브억’을 새김으로 쓴 한자는 ‘籠’이고 ‘籠’의 의미는 ‘불을 때는 구멍’이기 때문에 ‘브억’은 ‘불을 때는 구멍’을 뜻한다. ‘정듀’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실 3>

최소한 ‘조리 공간’을 뜻하는 ‘정듀’ 계열의 어휘를 사용하는 시기나 지역에 한정해서 ‘브억’ 계열의 어휘는 ‘불을 때는 구멍’을 의미한다.

이제는 <가설 2>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궁이’ 계열의 어휘가 국어사 자료에 나타난 용례를 찾아보아야 할 것 같다.

- (10) 아귀, 아궁기, 아궁이, 아궁지  
 竈火門 부엌 아귀<1690역어유,상,018b>  
 불 썩할 썩의 아궁계 드리켜더니 닷세 후의 헛처 보니<18XX금방울  
 전,04b>  
 아궁이 灶<1880한불자,003>, 아궁이 罔口 炷口<1895국한회,202>  
 고씨 부인은 정신업시 아궁지 속에 다가리만 드러박고 덜덜 쓸계<18XX  
 신계후전,032>  
 내려 와서는 냄비가 걸너 잇는 아궁지 밧홀 보았다.<1923행랑자식,120>

‘아궁이’ 계열의 어휘는 17세기 말에 간행된 <역어유해>에서 처음 확인할 수 있으며, ‘아귀, 아궁기, 아궁이, 아궁지’ 등으로 형태적 변이를 보인다. <역어유해>에서 ‘竈火門’을 ‘부엌 아귀’라고 설명하고 있고 <한불자전> 등에서도 ‘灶’의 새김으로 ‘아궁이’를 쓰고 있어, ‘아귀~아궁이’는 ‘불을 때는 구멍’을 뜻한다. 아래는 ‘아궁이류와 ‘부엌’류, ‘정두’류 어휘가 동시에 나타난 용례이다.<sup>7)</sup>

- (11) 아궁이 灶<1880한불자,003>, 부엌 廚<1880한불자,338>,  
 아궁이 罔口 炷口<1895국한회,202>, 주방 廚房<1895국한회,270>  
 廚 부엌 주, 竈 아궁이 조<1908신정천,028>  
 廚 부엌 주, 竈 아궁이 조<1913부별천,019b>

(11)에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조리 공간’을 의미하는 ‘廚’의 새김에는 ‘부엌’을, ‘불을 때는 구멍’을 뜻하는 ‘竈’의 새김에는 ‘아궁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아궁이’가 사용되는 경우에, ‘부엌’은 ‘조리 공간’이란 의미를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에서 살핀 논거를 토대로 ‘부엌~부엌’과 ‘아귀~아궁이’의 의미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

7) ‘정두’ 계열의 어휘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실 4>

17세기 후기에 ‘불을 때는 구멍’을 뜻하는 ‘아귀~아궁이’를 사용하면서, ‘브억~부억’류는 ‘조리 공간’만을 의미하게 된다.

<사실 5>

사실 1~4를 종합해 보면, ‘브섭~브석/브업~브억/부억’은 중세국어 시기에는 ‘불을 때는 공간 + 조리 공간’으로 의미가 분화되지 않은 채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정두’나 ‘아귀~아궁이’ 계열의 어휘가 시기나 지역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면서, ‘브섭’류 어휘는 ‘정두’류나 ‘아궁이’류가 담당하지 않은 ‘불을 때는 공간’과 ‘조리 공간’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이제는 본고의 관심사였던 ‘부삭’과 ‘정제’의 의미 범위가 정해진 시기와, 전남 방언 ‘부삭’이 중앙 방언 ‘부억’에서 의미 분화된 시기에 대한 논의만 남아 있다.

<사실 6>

전남 방언 ‘부삭’은 16세기 후기에 ‘정두’ 계열의 어휘가 등장하면서 축소된 의미를 그대로 전승하고 있다. 즉 ‘부삭’과 ‘정제’는 16세기 이후에 형성된 ‘불을 때는 구멍’과 ‘조리 공간’이란 의미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사실 7>

근대국어 시기에 ‘아귀~아궁이’의 생성과 함께 ‘부억’이 ‘조리 공간’만을 가리키게 되면서, ‘불을 때는 구멍’을 지칭하는 전남 방언 ‘부삭’과 중앙 방언 ‘부억’은 의미상 분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 III. ‘브섭’에서 ‘부삭’으로의 음운론적 변천

국어사 자료에서 ‘브섭~브석’ 계열의 어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12) 브섭, 브석

ㄱ 如 브섭 爲籠<1446훈민해,057>

塔엿 層과 지뵈 담괘 壯麗호미 곶오니 곳다운 브섭과 소나뭇 길흔 서늘호미 혼가지로다<1481두시초09,029a>

오란 브석 니마 우헛 누른 흘길 ㄱ라 발 글힌 브레 프러 머그면 즉제 도흐리라<1489구급간,02,100b>

庖 브석 포, 廚 브석 두, 籠 브석 조<1527훈몽자,중,005b>

(13) 브역, 브업

籠 브역 조<1576신유합,上,023b>

蔗漿 | 브역기서 가니 金盃 | 언 들흐니 어즈러운 더위를 시서 못히 뼈  
넘굽 모물 便安케 흐리로다<1613두시중8,022a>

塔엿 層과 지뵈 담괘 壯麗호미 곱오니 곳다운 브업과 소나뭇 길흔 서늘호  
미 흐가지로다<1613두시중9,030a>

(14) 부업

籠火門 부업 아귀<1690역어유,상,018b>

廚房 부업<1768몽유상,025b>

부역을 향호여 노리 호고 혹 곡읍호며 쏘 부업의 불노 향 휘우기 호며  
<1852태상해,009b>

廚 부업 주, 籠 아궁이 조<1908신정친,028>

(15) 부업

그때에 징신 신은 나의 아우가 뒤문에 나서면서 부업에서 밥투정을 하다  
나왔는지<1922넛날쌘은,003>

경채는 부업에서 차를 만들어가지고 나오고 있었다.<1948도야지,37>

중세국어 시기에 ‘부업’은 ‘브업’과 ‘브석’의 형태로 나타난다. 16세기 이후  
에는 ‘△’의 탈락과 함께 ‘브업~브석 > 브업~브역’의 형태로 변화하며, 17세  
기 이후에는 순음 아래에서 ‘ㅡ’ 모음이 ‘ㅏ’로 변화는 원순모음화의 영향을 입  
어 ‘브역 > 부업’으로 변화한다.

이쯤에서 ‘브업’에 대응하는 전남 방언이 ‘부삭’이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해야  
겠다. ‘부삭’에서는 ‘브업’의 ‘△’이 탈락되기보다는 ‘ㅏ’으로 나타나기 때문이  
다. 이처럼 ‘브업’의 ‘△’을 ‘ㅏ’으로 표기한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6) 브섭

못 브레 政治호요물 보리로소니 브섭 니예 庖廚의 머로물 알리로라<1481  
두시초14,019a>

못 브레 政治호요물 보리로소니 브섭 니예 庖廚의 머로물 알리로다<1613  
두시중14,019a>

(17) 브석

宋 시절 려릉왕 義眞이 武帝ㅏ 거상에 左右엿 사랴뭇 브려 도흔 고기 차반

을 사다가 집 안에 각버리 브석 밍ᄃ라 두고 먹더니<1517번호학,07,013b>

## (18) 브세

혹 브레 가 고기 자바 브세 드러 차반을 맛나게 문들오 텅의 올라 부뭇찌 문안흐니<1517번호학,09,099a>

或 물에 고기 잡놋다 브세 들어 돌고 만난 거술 ᄃ초고 텅의 올라 안부를 문즈오니<1586소학언,06,092a>

## (19) 브새

寵 브새 조<1700유합영,014b>

(16)~(19)는 ‘브섭~브석’ 계열의 어형들이 ‘브섭/브석/브세/브새’로 나타난 예이다. ‘브새’형을 제외하고, ‘브섭/브석/브세’형은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 보인다. 위의 예는 중세국어 시기에 ‘브섭~브석’이 ‘ᄃ’을 가진 다른 어휘들과 마찬가지로 ‘ᄃ’형과 ‘ㅅ’형을 혼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ᄃ’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전기 중세국어 시기에 ‘ㅅ’이 유성을 사이에서 ‘ㅅ>ᄃ’으로 변화되고, 14세기 70년대에서부터 15세기 중엽까지 ‘ᄃ’의 유성음이 약화되면서 소실 과정을 거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승녕 1956, 이기문 1990 : 30~39, 도수희 1987 : 61~85 참조 바람)<sup>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ᄃ’의 소실 과정과 관련한 논란거리 중 하나가 중세국어 시기부터 ‘ᄃ’ 대신 ‘ㅅ’을 유지하는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두시언해> 초간본에는 ‘브석’<1481두시초22,050b>과 ‘브섭’이 병존한다. 이러한 병존 현상을 이기문(1990, 30~39)은 남부방언형이 중앙 방언에 침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의견을 따르면 전남 방언 ‘부삭’은 전기 중세국어 시기의 음운론적 특징인 ‘ㅅ’ 어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남부 방언의 특징을 현재까지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9)</sup> 공시적인 방언에서도 ‘ㅅ’을 유지한 어형이

8) 이기문(1990)은 유성을 사이의 모든 ‘ㅅ’이 ‘ᄃ’으로 유성음화된 것이 아니라 ‘ㅅ[s]’이 ‘y, r, n’ 후행하는 환경에서 ‘ᄃ[z]’으로 변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9) 중세국어 시기에 ‘ᄃ’을 가진 어형들이 전남 방언에서는 ‘ㅅ’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이기갑 외, 1998 참조)

ᄃ새(剪)(훈몽 中7 뒤, 역박통, 상, 039b) → 가새(전남 전역, 승주·광양 제외)

ᄃ위(蝨)(구급간이방, 6, 44), 거위(觀訓 上11 뒤) → 거시랭이(곡성·보성·장흥·고

남부 방언권을 중심으로 나타나 이 같은 추론을 뒷받침 해준다.<sup>10)</sup>

한편 ‘브엵~브석’에서 ‘부삭’으로의 종성 변화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0) 브엵, 브엵

ㄱ 如 브엵 爲籠<1446훈민해,057>

塔엿 厝과 지벳 담괘 壯麗호미 곶오니 곳다운 브엵과 소나뭇 길흔 서늘호미  
미 흘가지로다<1613두시중9,030a>

(21) 브석, 브억, 부억

오란 브석 니마 우헛 누른 흘굴 ㄱ라 밭 글힌 브레 프러 머그면 죽제 도흐  
리라<1489구급간,02,100b>

籠 브억 조<1576신유합,上,023b>

籠火門 부억 아귀<1690역어유,상,018b>

廚 부억 주<1908신정천,028>

(22) 부억

그째에 정신 신은 나의 아우가 뒤문에 나서면서 부억에서 밥투정을 하다  
나왔는지<1922넛날뭇은,003>

경채는 부억에서 차를 만들어가지고 나오고 있었다.<1948도야지,37>

위의 예문을 살펴보면 ‘브엵’과 같이 ‘ㅂ’종성을 가진 어형은 <두시언해>중

흥·신안, 거시랭치(여수), 거시랑치(영암)

그스름(奘)(훈몽 하 15) → 끼시름(신안·강진·장흥·완도), 끼시름(영암)

무수(菁)(구급간이방 상 58) → 무시(영광·장성·담양·곡성·구례·함평·광  
산·신안·나주·화순·승주·장흥·보성·강진·고흥·여천·완도)

구시(櫃)(역노걸,상,031b) → 구시(영광·담양·곡성·구례·광산·신안·나주·  
화순·승주·순천·광양·강진·장흥·보성·고흥·여천·진도·완도)

10) ‘한민족 언어 정보화’의 ‘남한 방언 사전’ 참조.

부삭 <경남> <전남>[광주, 곡성, 신안, 영암, 진도, 장흥, 보성, 고흥, 여수, 화순,  
해남] / 부삿 <전남>[강진, 완도]

부석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중국>[태래, 할빈]

부삭 <전남>[광주, 곡성, 신안, 영암, 진도, 장흥, 보성, 고흥, 여수, 순천] <전북>

부썩 <경북> / 부석 <경상> <충청> <전남>[광양, 여수, 담양, 순천]

부숙 <경남>[거창, 함천, 창녕, 밀양, 함양, 산청 의령, 하동, 진주, 창원, 김해, 양산,  
사천, 남해, 통영, 거제]

부엵 <경남> <전남>[나주] / 부삿 <경상> <전남>[강진, 완도]

간본을 기점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브석’과 같이 ‘ㄱ’ 종성을 가진 어형은 중세국어 시기부터 20세기 초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0세기에서야 ‘부엌’과 같이 ‘ㄱ’ 종성을 가진 어형이 나타난다. 정리하자면 중세국어 시기에는 종성 ‘ㅂ’형(브몹~브업)과 종성 ‘ㄱ’형(브석~브억)을 혼용하다가, 근대국어 시기부터는 ‘ㄱ’형으로 통일한다. 그리고 현대국어 시기에 이르러서는 종성 ‘ㄱ’형이 나타나면서, ‘ㄱ’형을 표준어로 채택한다.

중세국어 시기에 ‘브몹’과 ‘브석’이 쌍형어이었던가, 아니면 변화형이었던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른 단어들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브몹’이 ‘브석’으로 변화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sup>11)</sup> 중세국어에서 종성 ‘ㅂ’이 ‘ㄱ’으로 바뀌는 예를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3) 붓 &gt; 북

鼓 붓 고<1527훈몽자,중,014a>

打鼓 북 티다<1690역어유,상,020b>

## (24) 거몹 &gt; 거북

흐 눈 가진 거몹과 흐 구무 가진 남기 잇느니<1447석보상,21,040a>

거북 귀 (龜)<1664유합질,009b>

## (24) 솥 &gt; 속

裹 솥 리<1527훈몽자,하,015a>

裹 속 니<1576신유합,上,002b>

(23)~(24)의 ‘붓 > 북’, ‘거몹 > 거북’(손희하 1991)의 변화는 이화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동화는 다른 두 음을 같거나 비슷하게 바꾸는 현상임에 반해, 이화는 오히려 중복된 연쇄를 막기 위해 그 중 한 음을 동화하기 어려운 음으로

11) ‘부엌’의 어원을 어떻게 보느냐에 종성의 변화 방향에 대한 견해는 달라 질 수 있다. 안옥규(1989)는 ‘브석’의 어원을 ‘붓(>북)’에 장소를 뜻하는 접사 ‘-억(>엃)’이 결합된 것으로 간주하여 ‘ㄱ’형(브석)을 기본형으로 추정하였다. 반면에 김형규(1974)·유창돈(1980)은 ‘브몹’을 기본형으로 추정하여, 종성 변화의 방향을 ‘ㅂ > ㄱ’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고는 국어사 자료에서 가장 규범적인 성격을 띠는 <훈민정음> 해례에 ‘브몹’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김형규(1974)·유창돈(1980)의 견해를 따라 ‘브몹’형을 기본형으로 보고자 한다.

바꾸는 현상을 말한다. 다시 말해 ‘거뿔’과 ‘뿔’이 모두 초성과 종성에 ‘ㅂ’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ㅂ’음이 연이어 소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종성 ‘ㅂ’을 ‘ㄱ’으로 변화시켰다는 말이다.

‘브엿 > 브석’의 변화도 한 단어 안에 ‘ㅂ’이 연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종성 ‘ㅂ’을 ‘ㄱ’으로 이화시킨 것이 아닌가한다. 그러나 ‘거뿔’이나 ‘뿔’과 달리 한 음절내에서의 이화가 아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남는다. 다만 이화 작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24)의 ‘슉 > 속’의 변화를 보면서, ‘브엿 > 브석’도 이화에 의한 ‘ㅂ > ㄱ’의 변화에 유추되었을 가능성도 타진해본다.

그리고 ‘부삭(< 브석)’, ‘부엿(< 부억)’과 같이 종성 ‘ㄱ’이 ‘ㅋ’으로 변화한 이유를 본고가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다만 두 가지 가설을 예상할 수 있다. 첫 번째 가설은 15세기의 ‘브석’이 원래 ‘ㅋ’종성을 가진 어휘인데, 8 종성법에 의해 ‘ㄱ’으로 표기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브석’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는 경우에는 종성 ‘ㅋ’이 모음 조사의 초성으로 연철 표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브석’에 처격조사 ‘의셔’를 결합하는 경우에도 ‘브억의셔’ <1613두시중8,022a>와 같이 ‘ㄱ’이 중철되어 나타날 뿐 ‘ㅋ’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첫 번째 가설은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근대국어에서 현대국어로 넘어오는 시기에 종성 ‘ㄱ’이 종성 ‘ㅋ’으로 격음화 되었다는 가설이다. 그러나 본고의 능력으로는 종성을 격음화한 원인을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부삭’을 제외하고 종성을 격음화한 예를 찾기도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겨두어야 할 것 같다.

‘브엿’에서 ‘부삭’으로의 음운론적 변천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실 8>

전남 방언 ‘부삭’은 전기 중세국어 시기에서 음운론적 특징인 ‘ㅅ’ 어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남부 방언의 특징 중 하나이다.

<사실 9>

종성 변화에 있어서 전남 방언 ‘부삭’은 ‘ㅂ·ㄱ의 병존 > ㄱ > ㅋ’으로 변화하는 중앙 방언의 변화 과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 IV. ‘정듀’에서 ‘정제’로의 음운론적 변천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전남 방언인 ‘정제’는 ‘조리 공간’을 뜻하는 어휘로 중앙 방언 ‘부엌’에 대응한다. ‘정제’가 어떤 어형에서 음운론적 변화를 겪어 발달한 어휘인가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정제’류가 국어사 자료에 나타난 용례를 찾아보아야 할 것 같다.

## (25) 정듀

廚 정듀 듀<1576신유합,上,023b>

방으트령 후 정듀트령 후 뉴산가 달거리 등트령<18a?홍부전,18a>

## (26) 정두

廚 정두 듀<1700유합영,014b>

## (27) 정디

정디 듀 廚<1664유합원,014b>

정디 듀 (廚)<1664유합질,014b>

## (28) 정지

정지 주(廚)<1884정몽유,016b>

庖 정지 포<1910역대천,002a>

廚 정지 주<1916통학경,021a>

## (29) 정지

어머니는 병들어 눕기는커녕, 정지에서 아침 반찬을 할 것인지 생선을 다르고 쪄지 않은가.<19XX상록수2,260>

그리다가는 앵도빚 가튼 우슴을 우수며 누가 간지리는 듯이 정지로 뛰어 들어갈 췌에는<19XX青春,009>

(25)~(29)는 국어사 자료에 나타난 ‘정제’류의 어형들이다. 전남 방언 ‘정제’와 유사한 어형은 <신증유합>의 ‘정두’라는 새김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제’ 계열의 어형은 크게 ‘정듀~정두’와 ‘정디’, ‘정지~정지’로 나뉜다. 중세국어 시기에는 ‘정두’만 존재하다가, 근대국어 시기에 ‘정디~정지’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먼저 (25)~(26)의 ‘정듀 > 정두’는 둘째 음절에서 ‘ㅍ > ㅌ’의 단모음화를

반영한 예이다. 이는 단순한 오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본고는 구개음화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영장사본 <유합>은 구개음화를 반영한 표기와 구개음화를 과도하게 인식한 나머지 정상적인 구개음도 구개음화한 것으로 착각하여 과도 수정한 표기까지 나타나는 문헌이기 때문이다.<sup>12)</sup> 이런 맥락에서 ‘듀 > 두’의 단모음화도 구개음화되는 음운론적인 환경을 제거해서 구개음화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27)~(29)의 ‘정디’에서 ‘정지’, ‘정지’로의 변화는 둘째 음절의 초성 ‘ㄷ’이 후행하는 ‘ㅣ’모음의 영향을 입어 구개음 ‘ㅈ’로 구개음화한 예이다. 그러나 ‘정듀~정두’에서 ‘정디~정지~정지’와 같이, 둘째 음절의 모음 ‘ㅍ/ㅑ’가 ‘ㅣ’로 변화한 이유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본고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있다는 사실만을 기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면 이제는 전남 방언인 ‘정제’형 대해서도 논의를 해보아야 할 것 같다. ‘정제’는 국어사 자료에서 용례를 찾을 수는 없으나, 경기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30) 저영기 <경남>[남해] / 저영지 <경남>[남해]

정계 <경남> <전남>[함평, 나주, 신안, 해남, 진도] <경남>[남해]

정기 <경남>[진주, 하동, 고성, 남해, 거창(북상)] <경남>[고성, 하동]

정자칸 <평북> <함북> / 정제시리 <함남>

정재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정제 <충북> <전남>[영광, 담양, 곡성, 구례, 함평, 광주, 무안, 화순, 순천, 순천, 고흥, 영암, 진도, 장흥, 보성, 완도] <전북> <충남>[금산] <강원> <경남> <경북> <제주> <평남> <함북> <중국>[태래]

정지 <전남>[장성, 광주, 신안, 함평, 나주, 화순, 광양, 해남, 강진, 고흥, 여수, 여수, 순천, 완도] <충북> <경남>[거창(북상), 함양, 산청, 함천(묘산), 함안, 통영, 거제, 밀양, 사천, 방곡, 거창, 창원, 하동, 남해, 울산(언양), 양산, 창녕, 김해, 의령] <강원> <제주>[전역] <경북> <전북> <충남> <평남> <평북> <함남> <함북> <중국>[태래, 오상,

12) 구개음화를 반영한 예로는 “短 저울단(영유 30 앞), 寺 절스(영유 11 뒤)” 등이 있으며, 과도하게 구개음화를 반영한 예로는 “齒 디줄인(영유 15 앞), 屐 격디극(영유 15 앞)” 등이 있다.

할빈, 교화, 개현, 계동, 연길, 훈춘]  
 정지가 <충북> / 정지간 <강원> / 정지간 <충남>[태안] / 정지서 <충북>  
 정지간 <경남> <중국>[태태] / 정지간 <경남> <경북><sup>13)</sup>

‘정듀’류 어휘는 공식적인 방언에서는 ‘저영기·정계·정기’류와 ‘정제·정제’류, ‘저영지·정지·정지가·정지간’류 등으로 나타난다. 먼저 ‘저영기·정계·정기’류는 구개음화 현상이 활발하게 적용된 남부 방언의 특징을 반영한 형태이다. ‘정계’는 ‘정제’의 둘째 음절 ‘스’이 정상적인 구개음인데도 구개음화되었다고 착각하여 ‘스’를 과도하게 ‘ㄱ’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그리고 ‘저영지·정지·정지가·정지간’류는 17세기 이후의 국어사 자료에 나타나는 어형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경기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고르게 나타난다. ‘정제·정제’류 또한 전 지역에 고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므로 ‘조리 공간’을 뜻하는 ‘정듀’류 방언형은 크게 ‘정지’류와 ‘정제·정제’류로 나눌 수 있다. 전남 방언 ‘정제’도 전남 방언의 특징적인 어형이라기보다는 ‘정듀’류 어휘의 대표적인 방언형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그런데 ‘정제’와 ‘정지’의 음운론적 변화 과정이나 변화의 순서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국어사 자료에는 ‘정지’형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지 > 정제’로 변화했을 가능성을 예상해 볼 뿐이다. 전남 방언에서는 “자네가 심 줌 써야제(=자네가 힘 줌 써야지)”(전남 전역)와 같이 어미 ‘-지’가 ‘-제’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정듀’에서 ‘정제’로의 음운론적 변천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실 10>

전남 방언 ‘정제’ 계열의 어휘는 중세국어 시기의 ‘정듀’에서 시작하여 ‘정듀 > 정디 > 정지 > 정제’로 변천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한다.

13) ‘한민족 언어 정보화’의 ‘남한 방언 사전’ 참조.

## V. 맺음말

본 연구는 주거 공간과 관련한 전남 방언 어휘를 수집하고, 수집한 어휘 중 ‘부삭’과 ‘정제’를 대상으로 의미 분화 양상과 음운론적 특징을 통시적 관점에서 고찰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중앙 방언 ‘부엌’과 전남 방언 ‘부삭’은 동일한 어원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적인 방언에서 의미 차이를 보인다. ‘부삭’은 ‘불을 때는 구멍’을 의미하는 반면에 ‘부엌’은 ‘조리 공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남 방언에는 ‘조리 공간’을 뜻하는 방언으로 ‘정제’가 따로 존재한다. 즉 전남 방언 ‘부삭’과 ‘정제’ 계열의 어휘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중앙 방언 ‘아궁이’와 ‘부엌’ 계열의 어휘에 대응한다. ‘부삭’과 ‘정제’ 계열의 어휘는 16세기에 ‘정두’류 어휘의 등장과 함께 형성된 의미 체계를 따른 것이다. 반면 17세기 이후에 ‘불을 때는 공간’을 뜻하는 ‘아궁이’류가 중앙 방언으로 나타나면서, 중앙방언에서는 ‘아궁이’와 ‘조리 공간’만을 의미하는 ‘부엌’ 계열이 형성된다. 이로써 전남 방언 ‘부삭’과 중앙 방언 ‘부엌’은 각각 ‘불을 때는 구멍’과 ‘조리 공간’을 뜻하는 의미로 분화한다.

또한 전남 방언 ‘부삭’은 중세국어 ‘브섭’보다 이른 전기 중세국어 시기의 음운론적 특징인 ‘ㅅ’ 어형을 유지한다. 그러나 중성의 변화에 있어서는 ‘ㅂ(브섭~브업) > ㄱ(브석~브억) > ㅋ(부삭~부억)’으로 중앙 방언과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또한 전남 방언 ‘정제’는 중세국어 시기의 ‘정두’에서 형태 변화를 해서 ‘정두 > 정디 > 정지 > 정제’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가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풀지 못해 과제로 남겨둔 문제들을 풀어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지역 방언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며, 국문 자료뿐만 아니라 이전 시기의 차자 표기된 문헌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주제어** : 전남 방언, 부삭, 정제, 의미 분화, 음운론적 변천

< 참 고 문 헌 >

- 강희숙(1994), 「국어 유기음화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한국언어문학』 32.  
\_\_\_\_\_(2000), 「전설모음화의 발달과 방언 분화」, 『한국언어문학』 44.  
\_\_\_\_\_(2001), 「언어의 변화와 보존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한국언어문학』 47.
- 국립국어연구원 엮음(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국립국어연구원 엮음(2001), 『표준국어대사전 전자사전』, 두산동아.
- 기세관(1986), 「나로도 방언의 어휘 자료」, 『남도문화연구』 2(순천대).
- 김용배(2002), 『전남 방언 연구』, 박이정.
- 김형규(1974), 『한국 방언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남광우 편(1997), 『교학 교어사전』, 교학사.
- 동아 출판사 한한 대사전 편집부 편(1982), 『동아 한한 대사전』, 동아 출판사.
- 문화 관광부·국립 국어 연구원(2004), 「역사 자료 말 뭉치(1998~2003)」, 『21세기 세종 계획 1·2단계 사업 결과물』.
- 민중 서림 편집국 편(1997), 『한한 대사전』, 전면 개정·증보판, 민중 서림.
- 도수희(1987), 『한국어 음운사 연구』, 탑출판사.
- 배주채(1998), 『고흥 방언 음운론』, 태학사.
- 서상준(1984), 「전라남도의 방언분화」, 『어학교육』 15(전남대).  
\_\_\_\_\_(1997), 「서부 전남의 방언」, 『송전 류우선 교수 정년 기념 국어국문학 논총』, 동 간행 위원회.
- 손희하(1991), 「새김 어휘 연구」, 전남대 박사 학위 논문.  
\_\_\_\_\_(2002), 「장성지역어의 음운」, 『석화 정재완 교수 정년 기념 논총』, 석화 정재완 교수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_\_\_\_\_(2004), 「새김 어휘 자료 말 뭉치」 1.5판.
- 손희하·위평량(2001), 「구립 지역어의 변화: 노년층과 장년층의 음운 비교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28(전남대).
- 위평량(2000), 「전남·경남 접경 지역의 언어 연구」, 전남대 박사 학위 논문.

- 유창돈(1964), 『이조어 사전』, 서울: 연세 대학교 출판부.  
\_\_\_\_\_(1980), 『어휘사 연구』, 이우출판사.  
위진(2002), 『조선시대 한자학습서의 국어 음운 표기 연구』, 전남대 박사 학위 논문.  
이기갑(1984a), 「동부 전남 방언의 성격」, 『언어학』 7.  
\_\_\_\_\_(1984b), 「전라남도의 방언구획과 서남해 섬들의 언어적 위치」, 『도서문화』 2(목포대).  
\_\_\_\_\_(1986), 『전라 남도의 언어 지리』, 탑출판사.  
\_\_\_\_\_(1991), 「전남방언 연구사: 이론과 실증간의 거리」, 『남북한의 방언연구: 그 현황과 과제』, 경운출판사.  
\_\_\_\_\_(1998), 「전남 방언의 개관」, 『방언학과 국어학』, 태학사.  
\_\_\_\_\_(2003), 『국어 방언 문법』, 태학사.  
이기갑·고광모·기세관·정제문·송하진 편(1998), 『전남 방언 사전』, 태학사.  
이기문(1978), 『16세기 국어의 연구』, 탑출판사.  
\_\_\_\_\_(1990), 『국어 음운사 연구』, 탑출판사.  
이돈주(1966), 「완도지방의 지명고」, 『호남문화연구』 4(전남대).  
\_\_\_\_\_(1978), 「진도의 방언」, 『호남문화연구』 10(전남대).  
\_\_\_\_\_(1979), 『전남 방언』, 형설출판사.  
이상규(2000), 『경북 방언 사전』, 태학사.  
이승녕(1956), 「△음고」, 서울대학교 『논문집』 3.  
이승재(2004), 『방언 연구』, 태학사.  
전광현(2003), 『국어사와 방언 1, 2, 3』, 월인.  
천득염·이정록·나경수·손희하·송민정·박의준(2004), 『남도 전통 주거론』, 경인문화사.  
최전승(2004), 『한국어 방언의 공시적 구조와 통시적 변화』, 역락.  
최학근(1990), 『증보 한국 방언 사전』, 명문당.  
한글 학회(1992), 『우리말 큰 사전』 4(옛말과 이두), 어문각.

[Abstract]

## A Diachronic Study on the Dialect of Housing Space

Wee, Jin ; Son, Heui-ha

In this study, We intended to describe the diversification process of meaning between *bueok*(the dialect of central area, the standard language) and *busak*(the dialect of *Jeollanamdo*) in diachronic method.

Although *bueok* and *busak* have the same pedigree, meanings are not in accordance; *busak* means a fuel hole and *bueok* means a cook space. In *Jeollanamdo* dialect, a cook space is *jeongje*, not *bueok*. On the other hand, the standard meaning of a fuel hole is *agung-i*. *Busak* and *jeongje*(the dialect of *Jeollanamdo*) correspond to *agung-i* and *bueok*(the dialect of central area) as synonyms. Therefore, We assumed that *bueok*(or *busak*) meant both a fuel hole and a cook space etymologically.

*Busak* and *jeongje* have been used from the middle ages and used in *Jeollanamdo* Jangheung up to now. But as *agung-i* meant a fuel hole in the central area of the 17th century, *bueok* didn't mean a fuel hole anymore. Therefore, We concluded that meaning between *bueok* and *busak* was differentiated in the seventeenth century.

Also we investigated the process of phonetic changes on *busak* and *jeongje*. *Busak* has preserved 'ㅅ/s/' that is a phonetic form in the early middle ages than 'ㄷ/z/' that in the middle ages. The final phoneme has been changed as follows; ㅂ/b/ > ㅃ/g/ > ㅋ/k/. *Jeongje* is originated in *jeongdyu*(form in the middle ages) and has been changed as follows; 정뉘 /jeongdyu/ > 정디/jeongdi/ > 정지/jeongji/ > 정제/jeongje/.

**Subject** : dialect of *Jeollanamdo*, *busak*, *jeongje*, diversification process of meaning , process of phonetic change